

## □ 산림내 도로(임도) 서비스 보도 자료

번호	언론사명	보도내용 (일자)	비고
1	연합뉴스	산림청 “전국 산림도로 한 눈에” (2010/12/21)	인터넷 신문
2	충청일보	전국 산림도로정보 ‘한눈에’ (2010/12/21)	인터넷 신문
3	공감코리아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2010/12/21)	인터넷 신문
4	한국경제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2010/12/21)	인터넷 신문
5	서울경제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산림청 홈페이지 찾으세요” (2010/12/21)	인터넷 신문
6	아시아경제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 내 길 찾기 ‘척척’ (2010/12/21)	인터넷 신문
7	아주경제	21일부터 산림도로현황 인터넷 서비스 (2010/12/21)	인터넷 신문
8	헤럴드경제	전국산림도로 인터넷으로 한눈에 본다 (2010/12/21)	인터넷 신문
9	뉴스스	산림청 “전국 산림 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2010/12/21)	인터넷 신문
10	데일리안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2010/12/21)	인터넷 신문
11	메디컬투데이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2010/12/21)	인터넷 신문
12	시티저널	산림도로현황 21일부터 인터넷서비스 (2010/12/21)	인터넷 신문
13	아시아투데이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 내 모든 길 찾는다. (2010/12/21)	인터넷 신문
14	노컷뉴스	산림청 ‘전국 산림도로 지도’ 구축 (2010/12/21)	인터넷 신문
15	충북일보	산림청 홈페이지 가면 산행정보 ‘좌르르’ (2010/12/22)	신문
16	충청투데이	산림도로현황 정보 한눈에 (2010/12/22)	신문
17	중도일보	전국산림도로 인터넷 검색 (2010/12/22)	신문

1	보도매체	연합뉴스	2010-12-21
	원문		

## 산림청 "전국 산림도로 한 눈에"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12-21 11:12 | 최종수정 2010-12-21 18:04



산림청 "전국 산림도로 한 눈에" (대전=연합뉴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국 산림도로 지도'를 구축,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산림도로지도는 산림청이 보유한 임도 외에 국도, 지방도, 소로 등을 1대5천의 축소 비율로 자세히 수록했다. 2010.12.21 seokye@yna.co.kr

### 산림도로지도 구축..인터넷 서비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국 산림도로 지도'를 구축,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산림도로지도는 산림청이 시설한 임도 외에 국도, 지방도, 소로 등을 1대5천의 축소 비율로 자세히 수록했다. 또 해당 번지를 입력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말까지 자체적으로 축적해온 임도 현황과 전국 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소로 등의 자료를 조사, 분석해 이 산림 도로지도를 만들었다.

그동안 기관별, 목적별로 산림내 도로 현황을 따로 관리하다보니 각종 산림사업 정책 수립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전국 산림도로 지도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산림청 심영만 치산복원과장은 "산림사업지를 선정하거나 기존 임도의 효율적 활용, 새 임도 개설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산객들의 산행정보로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산림내 도로는 총 16만1천483km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천862km, 보행만 가능한 도로가 11만6천340km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seokye@yna.co.kr

2	보도매체	충청일보	2010-12-21
	원문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91012	

## 전국 산림도로정보 '한눈에'

산림청, 16만1483km 전산시스템 구축

산림청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5000분의 1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게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어 산림청이 지난 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 현황을 조사·분석해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 이 가운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862km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가 11만6340km,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산림청이 산림 경영을 위해 개설한 임도 1만6068km, 면도·이도 2만6043km, 국도·지방도 2751km 등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 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 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 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들레길과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남윤모기자

3	보도매체	공감코리아	2010-12-21
	원문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08879&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보도자료**

Home > 정책정보 > 보도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21일부터 산림도로현황 인터넷서비스…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위치까지 확인

[인쇄](#) [목록](#)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 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가 11만6340km(72%),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산림청이 산림 경역을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 1만6068km, 면도·이도 2만6043km, 국도·지방도 2751km.

이처럼 전국의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 분석해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문의 : 산림청 치산복원과 이완교 사무관(042-481-4275)

| 등록일 : 2010.12.21

4	보도매체	한국경제	2010-12-21
	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214931h	

##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입력: 2010-12-21 10:11 / 수정: 2010-12-21 10:11

21일부터 산림도로현황 인터넷서비스,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위치까지 확인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가 11만6340km(72%).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산림청이 산림 경역을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 1만6068km, 면도·이도 2만6043km, 국도·지방도 2751km.

이처럼 전국의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분석해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5	보도매체	서울경제	2010-12-21
	원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12/e2010122110161093840.htm	

서울경제 > 뉴스 > 사회

 미투데이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크게
  +작게
 


사회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산림청 홈페이지 찾으세요"**  
 도로현황 인터넷 서비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전국 산림내 모든 길을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찾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산림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5,000분의 1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도로가 11만6,340km(72%)이다.

산림청은 이번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 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국민 관심이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2011년, 반드시 편입해야할 업종,종목 제시 투자설명회 개최 / 참가신청중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0/12/21 10:16:10 수정시간 : 2010/12/21 16:29:52

 뉴스홈으로
  맨위로

6	보도매체	아시아경제	2010-12-21
	원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2111113480182	

기사입력 2010.12.21 11:16    최종수정 2010.12.22 06:43

일반

##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 내 길 찾기 '척척'

기사보기

덧글보기 [0]



추천



가입하기하신 후 회원님의 친구들은 무엇을 추천하는지 알아보세요.

**21일부터 산림도로현황 인터넷서비스…번지로 검색하면 숲 위치까지 확인, 1대 5000 크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의 산림 안에 있는 모든 길을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대 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도로망도는 전국의 도로현황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숲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안엔 산림청이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돼있지만 이를 종합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기존 도로를 산림사업에 적극 활용치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키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안의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분석,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갖췄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청이 만든 임도 외에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지나면서 차가 오갈 수 있어 대체임도로도 사용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 6000km나 된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 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로 관련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쓸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심 과장은 “이 자료는 등산객과 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편하게 찾고 산행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내 설치된 도로 길이는 16만1483km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4만4862km(28%) ▲보행만 할 수 있는 소로는 11만6340km(72%)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중 산림청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는 1만6068km ▲면도?이도는 2만6043km ▲국도·지방도는 2751km로 집계됐다.

[AD] "내담첨비결은 바로...", 로또달인 입열었다!

[증권방송] 제대로된 기법전수! 특급 주식방송 AsiaeTV.com

[AD]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거래수수료 무료] ZeroTV 탄생!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http://www.asiae.co.kr)) 무단 전재 배포금지>



7	보도매체	아주경제	2010-12-21
	원문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1221000177	

## 21일부터 산림도로현황 인터넷 서비스

등록 2010-12-21 10:18  
수정 2010-12-21 10:21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가 11만6340km(72%)이다.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산림청이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 1만6068km, 면도·이도 2만6043km, 국도·지방도 2751km에 이른다.

이같은 전국의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분석해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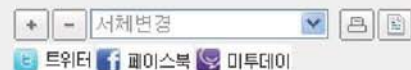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 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며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8	보도매체	헤럴드경제	2010-12-21
	원문	<a h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21000580">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21000580</a>	

## 전국 산림도로 인터넷으로 한눈에 본다

2010-12-21 11:31

### <홍승완 기자 @Redswanny>

전국의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 분석해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선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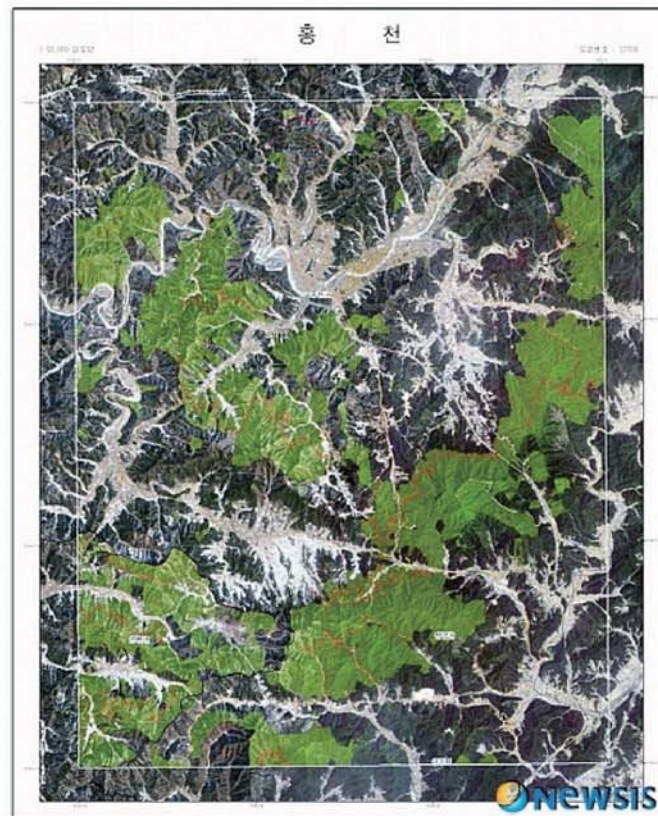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 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swan@heraldm.com

9	보도매체	뉴스스	2010-12-21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00839	

## 산림청 "전국 산림 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NEWSIS | 기사입력 2010-12-21 13:59



【대전=뉴스스】 박희송 기자 = 전국의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 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 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분석,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 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경영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 행정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에 이른다.

이 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가 11만6340km(72%)로 나타났다.

heesking@newsis.com

10	보도매체	데일리안	2010-12-21
	원문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1412&sc=naver&kind=menu_code&keys=25	

##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21일부터 산림도로현황 인터넷서비스...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위치까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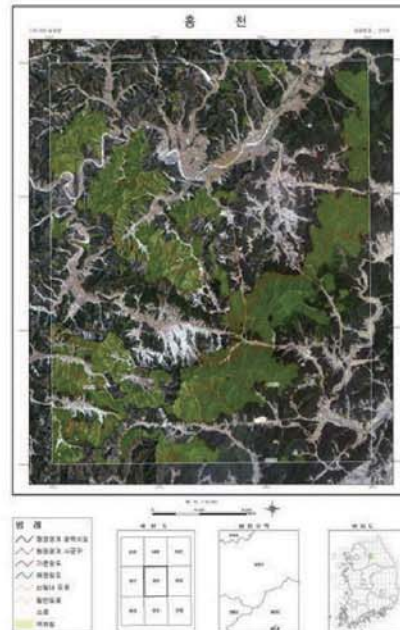
김창견 기자 (2010.12.21 12:24:08)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가 11만6340km(72%),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산림청이 산림 경역을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 1만6068km, 면도·이도 2만6043km, 국도·지방도 2751km,

이처럼 전국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 산림내 도로지도(삼출) ©산림청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분석해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 및 **경역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할**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데일리안 대전총남=김창견 기자]



11	보도매체 원 문	메디컬투데이	2010-12-21
		<a href="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6673">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46673</a>	

메디컬투데이 > 환경

**환경** **산림청 홈페이지 전국 산림내 모든 길 찾을 수 있다** RSS 가 가

**21일부터 산림도로현황 인터넷서비스...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위치까지 확인**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전국의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 분석해 전산 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 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산림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 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2	보도매체	시티저널	2010-12-21
	원문	http://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31678	

## 산림도로현황 21일부터 인터넷서비스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위치까지 확인

2010년 12월 21일 (화) 12:10:12

편집부 news@gocj.net

우리나라 산림 내에 설치된 도로 총길이는 16만1483km, 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4만4862km (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로가 11만6340km(72%).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산림청이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개설한 임도 1만6068km, 면도.이도 2만6043km, 국도 지방도 2751km.

이처럼 전국의 산림 내에 시설된 모든 도로를 한눈에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도 분포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 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 분석해 전산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 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임도 개설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도로망도는 산림청을 비롯해서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들이 산림 사업이나 임도 설치계획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면서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망도를 찾아보려면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Green정보'를 클릭한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13	보도매체	아시아투데이	2010-12-21
	원문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30692	

입력 [2010-12-21 14:10]

##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 내 모든 길 찾는다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M투데이  요즘

[아시아투데이=김숙현 기자] 전국의 산림 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한눈에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21일부터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실어 국민이 이용하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도로망도는 전국 도로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 내에는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 국도, 지방도 등 각종 도로가 분포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존 도로를 산림사업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고 어느 지역에 임도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분석해 전산 시스템(GIS 자료)으로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실리는 도로망도는 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로현황 분석 결과 산림사업 수행을 위해 산림청이 직접 시설한 임도 이외에도 면도(面道), 이도(里道) 등 산림지역을 관통하면서 차량통행이 가능해 대체임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는 임도의 1.8배인 2만9000여km였다.

또 노폭 1.5m 미만의 소로는 11만6000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런 자료가 각종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기존 임도의 효율적 활용, 신규 임도 개선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로에 대한 자료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숙현 기자 shkim@asiatoday.co.kr>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14	보도매체	노컷뉴스	2010-12-21
	원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68474	

## 산림청 '전국 산림도로 지도' 구축

+ - ☒ ☒

2010-12-21 18:21 대전CBS 조성준 기자 **산림도로**

기사 보내기 ▶ 추천자수 (10) 댓글 (0)

❓ 독상들이여! 솔로탈출하자

! 정답을 확인하세요.

link



▶ 홍천지역 산림 내 도로 현황.(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국 산림도로 지도'를 구축,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산림도로 지도는 산림청이 시설한 임도 외에 국도, 지방도, 소로 등을 1대5천의 축소 비율로 자세히 수록했으며, 해당 번지를 입력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자체적으로 축적해온 임도 현황과 전국 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소로 등의 자료를 조사, 분석해 이번 산림도로 지도를 만들었다.

산림청 심영만 치산복원과장은 "산림사업지를 선정하거나 기존 임도의 효율적 활용, 새 임도 개설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등산객들의 산행 정보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이번 지도를 만들면서 도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산림 내 도로는 총 16만 1천 483km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28%인 4만 4천 862km, 보행만 가능한 도로가 72%인 11만 6천 340km로 조사됐다.

15	보도매체	충북일보	2010-12-22
	원 문	신문	

**충북일보**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003면 사회

## 산림청 홈페이지 가면 산행정보 '좌르르'

속리산 주요 등산로 등 전국의 산에 설치된 모든 도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산림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1:5,000 도로망 지도를 자체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구축, 21일부터 무료 서비스에 들어갔다. 도로망도에서는 전국 도로 현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번지로 검색하면 산림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도로망도를 찾으려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Green정보'를 누른 뒤

'산림공간정보포털'로 찾아가면 된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등산객을 비롯한 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간편하게 찾아보고, 산행정보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소도로(小道路)에 대한 자료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둘레길과 자전거도로 등을 만드는 데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 최준호기자

16	보도매체	충청투데이	2010-12-22
	원 문	신문	

## 충청투데이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006면 사회

### 산림도로현황 정보 한눈에

산림청은 전국 산림 내 도로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는 1:5000 도로망도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2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산림 내 도로는 총 16만 1483km로 이 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는 4만 4862km(28%)이고, 보행만 가능한 소규모 도로가 11만 6340km(78%)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 산림청이 산림 경영을 위해 개설한 임도 1만 6068km와 면도·이도 2만 6043km, 국도·지방도 2751km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말까지 산림 내 모든 도로현황을 조사·분석해 전자시스템(GIS자료)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망도를 만들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1@cctoday.co.kr](mailto:top7361@cctoday.co.kr)

17	보도매체	중도일보	2010-12-22
	원 문	신문	

## 중도일보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006면 사회

### 전국 산림도로 인터넷 검색

#### 산림청 홈페이지 서비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전국 산림도로를 찾을 수 있게 됐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산림 내에 설치된 모든 도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국 산림도로 지도'를 구축,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

이 산림도로지도는 산림청이 시설한 임도 외에 국도, 지방도, 소로 등을 1대5000의 축소 비율로 자세히 수록했다.

전국 산림도로 지도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배문숙 기자